

고교생 유권자들 “선거요? 몰라요!”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심란’
선관위, 찾아가는 교육 무산
교사·학부모 선거 거론 부담

“개학 연기로 가뜰스나 심란한데, 선거가 눈에 들어올까요?”

올해 고3이 된 한모(18)군은 “생일이 3월이라 총선 때 투표권은 있다”면서도 “이상황이라면 총선 당일에 투표하러 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지면서 사상 첫 ‘교복 입은 유권자’들의 4·15총선 투표가 선거 교육 한 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선거 무관심과 투표율 저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이상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3월에 개학하면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개학이 또 다시 연기되면서 일정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학교 개학이 연기돼 이미 교육을 신청했다라고 취소된 상태이며, 최근에 신청한 학교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개학일인 4월 6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사이에도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선거운동이 시작(4월2일)되는 개학 이후에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어서 선거 교육을 신청할 학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와 각 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휴업 기간동안 선관위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로 선거 교육 자료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 홈페이지

지에서 카드뉴스·웹툰 등으로 선거 관련 기본 정보를 배울 수 있고, 선관위 유튜브 채널에서는 10대에 인기 많은 김민아 아나운서와 아이돌그룹이 출연하는 웹드라마로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익힐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이 만든 교사용·학생용 선거 교육 책자와 리플릿을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했다. 각 학교는 개학 첫 주에 선거 교육을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고3 학생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개학 연기 여파로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6일에 치러지는 점이 선거 참여 독려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3월)는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첫 번째 시험으로,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 불리는 점에서 ‘교복 유권자’들이 4월16일 시험일 전날인 15일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극도로 예민해진 고3들에게 교사나 학부모가 선거에 대해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잇따른 개학 연기로 현재 고3 학생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학사일정마저 재수생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선거교육은 커녕 선거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고3으로 선거권을 처음 가진 김모 군은 투표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공부하느라 정신이 있겠어요?”라며 말 끝을 흐렸다.

광주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교육청이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를 위해 가정학습을 안내하고 동영상 자료와 리플릿 등을 활용한 선거교육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관심도도 높지 않다”며 “학생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갖는 고등학교 재학생 유권자는 광주 5300여 명, 전남 5900여 명으로 총 1만 1300명에 달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 농산물로 면역력 기르자” 광주시와 농협 광주지역분부는 23일 오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행사를 열고 지역 농민 300여 명이 생산한 11개 품목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2만원에 판매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

광주시, 가구당 30~50만원·특수고용직 최대 100만원
전남도, 총액 1835억원·가구당 최대 80만원 지급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계층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과 공공요금 동결 등에 이어 3차 대책으로, 이날 출범한 광주 비상경제 대책 회의의 첫 회의에서 확정됐다.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광주 전체 61만8500여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상인 27만 가구와 정부나 시로부터 별도 지원받은 8만8000가구를 뺀 26만여 가구(41.9%)가 지원 대상이다.

또 광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이후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기사 등과 교육, 여가, 운송 분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다.

10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했거나 무급 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모두 광주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형 광주 상생 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11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국비와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한 뒤 이달 중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95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홈페이지에도 전용 배너를 설치·운영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협장의 목소리와 비상경제 대책 회의의 의의의 사항을 반영해 고용유지 방안 등 분야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날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코로나 19 긴급 민생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금 총액은 1835억원, 가구당 최대 80만원이다. 긴급생활비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19 긴급 민생지원 담화문’을

발표하고 “1분 1초가 절박한 오늘의 비상국면 극복을 위해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민생 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가 밝힌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주민을 제외하면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32만 가구다. 가구원에 따라 가구당 최대 50만원 지급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8만 5000명에게는 3개월분 공공요금(전기·수도요금 등)을 최대 30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이자지원, 특별보증 및 수수료 면제, 금융 취약계층 소액 대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도 시행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IOC “도쿄올림픽 연기 논의”

“보건상황 검토 4월에 결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연기’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관련기사 21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2일(현지

시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쿄 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IOC는 이날 긴급 집행위원회를 진행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IOC는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일본 당국, 도쿄도와 협력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계적인 보건 상황과 올림픽에 대한 영향 평

가를 완료하기 위해 (올림픽을) 연기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OC는 앞으로 4주 안에 해당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IOC는 다산 성명에서 “IOC 집행위원회는 도쿄 올림픽을 취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취소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베 총리도 23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을 ‘완전 형태’로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연기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도쿄올림픽 연기 논의를 포함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새 방침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완전한 형태로 실시한다는 방침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 선수 여러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